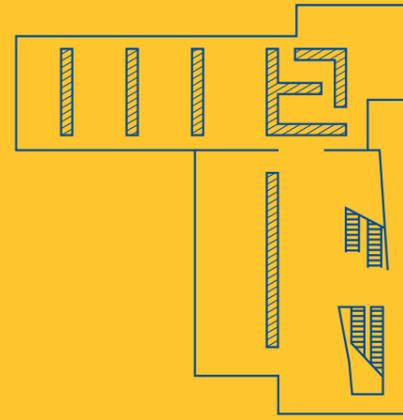


瑞安·甘德择选藏品展 - 前所未闻的精彩故事

라이언 갠더가 선택한 소장품전 - 가장 위대한 이야기

2017.4.29 – 7.2



乔治·席格 / 조지 시겔	1924 - 2000	砖墙 / 벽돌 벽	1970 < 1 >	乔治·巴塞利兹 / 게오르크 바젤리츠	1938 -	柯尼西夫妇的肖像 / 페니히 부부의 초상	1970-71
勇·野口 / 이사노 노구치	1904 - 1988	黑太阳 / 검은 태양	1967-69 < 2 >	吉原治良 / 요시하라 지로	1905 - 1972	无题 / 무제	1971
约瑟夫·科苏斯 / 조셉 코수스	1945 -	彩色 / 컬러	1968 < 3 >	弗兰克·斯特拉 / 프랭크 스텔라	1936 -	Gray Scramble XII double / Gray Scramble XII double	1968
让·阿尔普 / 장(한스) 아르프	1887 - 1966	杯或果实 / 컵 혹은 과일	1960 < 4 >	长泽英俊 / 나가사와 히데토시	1940 -	两个圆锥 / 두개의 원추	2002
日高理惠子 / 히다카 리에코	1958 -	抬头望树 V / 나무를 우러러보고 V	1991 < 5 >	托马斯·迪曼德 / 토마스 데만트	1964 -	从树叶空隙照进来的阳光 /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2002
莫里斯·路易斯 / 모리스 루이스	1912 - 1962	Nun / Nun	1959 < 6 >	榎仓康二 / 에노쿠라 고지	1942 - 1995	干涉 (STORY-No.46) / 간섭 (STORY-No.46)	1992
高松次郎 / 다카마츠 지로	1936 - 1998	英语单词 (These Three Words) / 영어 단어 (These Three Words)	1970 < 7 >	利亚姆·吉利克 / 리암 길릭	1964 -	Endings / Endings	2008
约瑟夫·康奈尔 / 조셉 코넬	1903 - 1972	仙后座 # 1 / 카시오페이아 # 1	c.1960 < 8 >	安塞尔姆·基弗 / 안젤름 키퍼	1945 -	星空 / 별이 총총한 밤하늘	1995
詹姆斯·罗森奎斯特 / 제임스 로젠카스트	1933 - 2017	无题 / 무제	1973 < 9 >	瑞安·甘德 / 라이언 갠더	1976 -	联想照片 - 电话或其它方法 / 연상사진 - 전화 혹은 다른 방법으로	2004
瑞安·甘德 / 라이언 갠더	1976 -	捉刀·副标题 (为了意味深长的、象模象样的、感叹修饰问号)/ 대필자의 서브 텍스트(좀 더 의미있고 그럴듯한 감탄 의문 부호를 위해서)	2006 < 10 >	泉太郎 / 이즈미 다로	1976 -	檐与团扇 / 가리개와 부채	2013
约瑟夫·博伊斯 / 요셉 보이스	1922 - 1986	Capri-Batterie / 카프리 배터리	1985 < 11 >	岛袋道浩 / 시마부쿠	1969 -	柿子与西红柿 / 김과 토마토	2008
罗贝尔·德马西 / 로베르 드마쉬	1859 - 1938	摘自写真集"Primavera Series" / 사진집 『프림라베라 시리즈』에서	不明 / Unknown < 12 >	会田诚 / 아이다 마코토	1965 -	瀑布的画 / 폭포의 그림	2007-10
艾米丽·卡莱·肯瓦芮 / 에밀리 카메 크와레예	c.1910 - 1996	山芋 / 마(Yam)	1995 < 13 >	柳幸典 / 야나기 유키노리	1959 -	Wandering Position - Monomorium minimum 1 / Wandering Position - Monomorium minimum 1	1995
盐见允枝子(千枝子) / 시오미 미에코(치에코)	1938 -	特别的诗No.1"语言活动" / 스페셜 포엠 No.1"언어의 이벤트"	1965/2004 < 14 >	西蒙·帕特森 / 사이먼 패터슨	1967 -	大熊座 / 큰곰자리 별	1992
让·皮埃尔·雷诺 / 장 피에르 레이노	1939 -	自刻像 / 자각상	1980 < 15 >	欧文·沃姆 / 에르빈 부엀	1954 -	无题 / 무제	2008
沃克·埃文斯 / 워커 에반스	1903 - 1975	街头风景、New Orleans / 거리 풍경, 뉴올리언스	1935 < 16 >	托马斯·施特鲁特 / 토마스 슈트루트	1954 -	涩谷的十字路口、东京 / 시부야 교차점, 도쿄	1991
仓俣史朗 / 쿠라마츠 시로	1934 - 1991	玻璃的椅子 / 유리 의자	1976 < 17 >	米罗斯瓦夫·巴尔卡 / 미로스와프 바우카	1958 -	φ51x4, 85x43x49 / φ51x4, 85x43x49	1998
沃尔夫·福斯特 / 볼프 포스텔	1932 - 1998	futura22 / futura22	1965-68 < 18 >	山城隆一 / 야마시로 류이치	1920 - 1997	森·林 / 큰 숲·작은 숲	1990
关根美夫 / 세키네 미시오	1912 - 1989	算盘 / 주판	1971 < 19 >	伊米·克诺贝尔 / 이미 크노벨	1940 -	格雷丝·凯利(IV-5) / 그레이스 켈리(IV-5)	1990
托西诺布·欧诺萨拓 / 오노사토 도시노부	1921 - 1986	两个圆 / 2개의 원	1959 < 20 >	路易·加纳 / 루이 칸	1943 -	No.79-180 「你吗」 / No.79-180 「당신?」	1979
佐伯祐三 / 사에키 유조	1898 - 1928	酒吧入口 / 바(bar)의 입구	1927 < 21 >	乔尔杰·奥保 / 조르제 오즈볼트	1967 -	除了形而上的东西以外还让我爱什么 / 형이상적인 것 이외의 무엇을 사랑하라는 말인가.	2008
菅井汲 / 스가이 구미	1919 - 1996	S.14 & S.15 / S.14 & S.15	1990 < 22 >	贝尔纳·弗里茨 / 베르나르 프리츠	1954 -	51%的真实, 48%的虚伪 / 51%의 진실, 48%의 허위	2003
罗瑞·托比·埃迪森 / 로리 토비 에디슨	1942 -	Bob Guter / 밥 거터	2000 < 23 >	迈克尔·波瑞门茨 / 미하엘 보레만스	1963 -	Automat (3) / Automat (3)	2008
福冈道雄 / 후쿠오카 미치오	1936 -	Peach-House / 피치 하우스	1974 < 24 >	岩城直美 / 이와키 나ومی	1969 -	House / House	2001
卢齐欧·封塔纳 / 루치오 폰타나	1899 - 1968	空间概念、期待 / 공간개념, 기대	1962 < 25 >	深见陶治 / 후카미 수에 하루	1947 -	景 / 경(景)	1993
马塞尔·布达埃尔 / 마르셀 브루타스	1924 - 1976	署名、系列 / 서명, 시리즈 I	1969 < 26 >	河原温 / 가와라 온	1933 - 2014	June 23, 1980 / June 23, 1980	1980
安迪·沃荷 / 앤디 워홀	1928 - 1987	4英尺的花 / 4피트의 꽃	1964 < 27 >	中西夏之 / 나카니시 나츠유키	1935 - 2016	背·白 edge I / Back, White-edge I	2007
马塞尔·杜尚 / 마르셀 뒤상	1887 - 1968	摘自马塞尔·杜尚语录的、杜尚本人撰写的人物评的复制 / 마르셀 뒤상 어록에서 뒤상 자작 프로필 복제	1968 < 28 >	托马斯·鲁夫 / 토마스 루프	1958 -	Portrait (K.Kneffel) / 포트레이트(K. 크네펠)	1988
巴勃罗·毕加索 / 파블로 피카소	1881 - 1973	有画报的风景 / 포스터가 있는 풍경	1912 < 29 >	曼·雷 / 만 레이	1890 - 1976	Isidore Ducasse之迷 / 이지도르 뒤카스의 수수께끼	1920/71
瑞秋·怀特里德 / 레이첼 화이트리드	1963 -	无题(树脂的胴体) / 무제(합성수지의 토르소)	1996 < 30 >	小林孝亘 / 고바야시 다카노부	1960 -	Pillows / Pillows	1997
森山大道 / 모리야마 다이도	1938 -	续日本剧场相册 / 일본, 극장 사진첩 II	1978 < 31 >	奇奇·史密斯 / 키키 스미스	1954 -	无题 / 무제	1990
埃斯沃兹·凯利 / 엘즈워스 켈리	1923 - 2015	无题 / 무제	1973 < 32 >	佐川晃司 / 사가와 고지	1955 -	无题 / 무제	1980
东松照明 / 도마츠 쇼메이	1930 - 2012	讽刺的诞生、名古屋 / 아이러니한 탄생, 나고야	1950 < 33 >	米开朗基罗·皮斯特莱托 /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1933 -	无题 / 무제	1980s
丹尼·尔布伦 / 다니엘 뷔랑	1938 -	可变形态的绘画 / 가변형태의 회화	1965 < 34 >	深泽史朗 / 후카자와 시로	1907 - 1978	Window-74-A / Window-74-A	1974
工藤哲巳 / 구도 테츠미	1935 - 1990	绳文的构造 = 天皇制的构造 = 现代日本的构造(关于天皇制的构造、神圣的黑洞) / 조문(縄文)의 구조 = 천황제의 구조 = 현대일본의 구조(천황제의 구조에 대해서 - 성스러운 블랙홀)	1983 < 35 >	麦克·凯利 / 마이클 켈리	1954 - 2012	City 13 (1 of 10) (from series Kandors) / City 13 (1 of 10) (칸도르 시리즈에서)	2007-09
巴勃罗·毕加索 / 파블로 피카소	1881 - 1973	小丑与孩子 / 코미디언과 아이	1905 < 36 >	马莱内·杜马斯 / 마를렌 뒤마	1953 -	祖父与孙女 / 할아버지와 손녀	2006
高松次郎 / 다카마츠 지로	1936 - 1998	大理石单体 / 대리석 단체(单体)	1971 < 37 >	草间弥生 / 구사마 야요이	1929 -	道德的房间 / 도덕의 방	1976
儒勒·帕斯森 / 줄스 파스킨	1885 - 1930	横躺的裸妇 / 누워있는 나부(裸婦)	1920-25 < 38 >	罗伊·福克斯·利希滕斯坦 / 로이 리히텐스타인	1923 - 1997	Roommates, from the Nudes Series / 룸메이트(누드 시리즈에서)	1994

本次展览会的题为“前所未闻的精彩故事”，这里的“故事”指的是有关美术的历史故事。这个题目是为了庆祝迎来了建馆40周年的国立国际美术馆40年来的活动轨迹，建馆以来国立国际美术馆一直致力于确认、选择、展示，并为了大众与未来共同保管历史上的重要作品。

对于作为艺术家的我、处于收藏家对极的我，选择馆藏展的作品是个很严峻的课题。如同进了糖果店的孩子一般，在质与量均为重量级的馆藏艺术品面前，我彻底陷入了无法抉择的境地。我决定要为缩小选择幅度制定自己的方针，我的方针就是基于“成对”、“组合”的观念，营造游戏的展览会。同时展示两个作品，既是从人习惯于比较对比的本性出发，又是与“发现两个东西间不同点”的儿童游戏有关的。对于相同的事物，“通过联想而使彼此建立关系”、“指出彼此的关系”，这些都是作为人的本能欲求，与生俱来的。这就像是双胞胎的情形，也是视觉上的问题。而有时令人深感兴趣的是，比如可口可乐的罐子与百事可乐的罐子虽然具有类似的化学物质，但看上去却完全不同，正如同像打喷嚏的日文的拟声词是Ha Ku Xiong，而英文是A Xiu一样，也是有关性质的问题。

我之所以运用这种从联想出发的方法论，是因为想确认能否发现具有关联性与类似性的多种多样的作品，并以成对、组合的形式展示。在作品与作品之间产生的联想，也许有时是极微妙、极少的，但可以引起兴趣的冲突与差异的余地则充分的留在了两点之间。我选择的成对的作品都是相隔遥远各自独立创作的作家的作品、时代明显不同的作品、素材及样式不同的作品、看上去观点与信条截然不同的作品，它们揭示了我们生存的世界实际上是多么的丰富多彩与富于变化。

我们在展览会场走动的时候，会体会到多种多样的主题。家·青春期·二等分·输·署名·联想·痕迹·表情·地图·成倍·无脚·高台等既是主题又是关键词。本次展览会从类似性出发并以它为主题，为著作权·所有权·原作者而烦恼的我们这个时代的美术史，具有相似想法的艺术家们铭刻下数道轨迹。同时本次展览会也表现了我们的想象力无法逃离人的生物物理性质的事实、进行无意识的剽窃的现实，以及不存在发挥个性的天才的实情。展览会也在提示人们视觉语言的进展并不是个人的圣战，这数世纪的美术多数都是集团的造物。“有关现代美术的正确观点是，不是单独存在的事物。”“前所未闻的精彩故事”展出的国立国际美术馆藏品会无意识的给我们提供纵横多彩的观点，会有一股乐天派的美术史风吹进这里。

전시회명인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서 이야기란 미술의 역사 이야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전시회는 역사상 중요한 작품을 확인·선택·전시함과 동시에 공공의 많은 사람들과 미래를 위해 보관 해 온 개관 4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국제미술관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큐레이터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아티스트인 나에게는, 전시를 위해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과자 가게에 있는 아이처럼, 압도적인 질과 양의 소장품 앞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규칙을 정해, 「쌍/짝」또는 「조합」이라는 테마로 게임의 전시회를 완성했다. 두 개의 작품이 눈 앞에 놓여지게 되면 비교하고 대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한 본능은 예를 들면 틀린 그림 찾기와 같은 시시한 어린이 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연상(聯想)에 의해 관계 짓는 것」과 「관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욕망도 인간의 조건으로서 내재되어있다. 그것은 쌍둥이의 경우처럼 시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코카콜라 캔과 펩시 콜라 캔처럼 유사한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나, 재채기의 의성어가 일본어로는 “햏쿠송 (ハックション)!”、영어로는 “앗슈 (Atchoo)!”인 경우처럼, 성질적인 문제이기도하다.

이러한 연상(聯想)에 의한 방법론을 적용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어진 많은 작품들로 부터 관련성이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파트너 혹은 쌍으로 나란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작품 간에 일어나는 연상은 때로는 미묘하고 극히 드물 수도 있지만, 두 작품간에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충돌이나 상이함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하나의 쌍을 이룬 작품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작되었으며, 시대가 현저하게 다르며, 소재와 양식이 같지 않으며, 이론과 신조가 대조적이다. 이 작업의 결과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 얼마나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시실을 이동하면서 다양한 테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와 주제가 되는 것은 집·사춘기·이등분·고리(倫)·서명·연상(聯想)·흔적·표정·지도·더블(Doubles)·다리가없음·고대(高臺) 등이다. 유사성을 중시하며 이를 기본 전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아이디어의 저작권·소유권·출처에 집착하는 현 세대의 미술사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공통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번 전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인간의 생물적·물리적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표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 개성을 발휘하는 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전시는 시각 언어의 과정이 개인의 신성한 투쟁이 아니라,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의 미술에서는 다수에 의한 집단적 구조물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확실한 것은 현대 미술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리암 길릭). 이와 같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전은 국립 국제 미술관의 소장품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논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만아니라, 각계 각층의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낙관적인 미술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